

가정상담

2003

8

통권 240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족정책 - 부부평등과 자녀 노인의 복지

4 • 0 달의 메시지

5 • 특집

고령사회와 여성노인의 삶의 질 |

0 • 칼럼 결혼과 인생(8)

11 • 상담소에서

12 • 가정폭력상담실

14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15 • 인터넷 상담

16 • 상담소 소식

17 • 지부 칼럼

18 • 지부 소식

19 •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법원 지정 가정보호사권
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780-5688/9

<http://www.lawhome.or.kr>

상담
안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기관으로 가난하고
법률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서
전문상담원과 변호사들이
상담, 화해 · 조정, 무료대서,
무료변론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

월~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야간상담 :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좋은 책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여자 이야기

유동영 허정민 구술정리와 사진
다세집, 2003년 발행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의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의 횡포를 참으려 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의 '구박'을 묵묵히 감수한다는 짓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한다. 여자의 권리가 거의 없었던 시대에 - 그러나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다 -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여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진 삶을 살아왔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에 남편이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사망해 과부가 되었고,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가 이웃집에 작은 마누라로 들어가 딸 하나와 아들 셋을 낳고 50년을 '큰 어매'와 '작은 어매'로 불리면서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전라도 선정마을의 금산맥 할머니, 강원도 화천에서 젊은 날에 과부가 되어 평생을 그리움으로 사무처 꽃과 노래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이씨 할머니, 남의 집 애보기 하던 어린 시절을 거쳐 결혼하여 단 하루도 시어머니 잔소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여자라면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전라도 깊은골 마을 며느리 정씨, 가난뱅이 노총각에게 시집가서 열 다섯부터 마흔 세 살까지 열 한 명의 자식을 낳아 한 번도 등이 비어 본 적이 없다는 경상도 구수 마을의 이씨 할머니 등

이들 할머니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궁핍한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가장인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몫이었다. 그들은 남편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대책 없이 게으르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하여 아내인 자신들이 억척스럽게 일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게다가 고생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는 법이 없으며 시어머니의 구박은 이중의 고통이다. 그럼에도 할머니들은 세상을 비판하지 않으며 '살기가 푹푹하이 그런 거지 내가 미워서 그랬겠냐' 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사연마다의 토속적인 사투리로 해독에 어려움이 있지만 할머니들의 살아온 한(恨)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진다.

중국여성 잔혹풍속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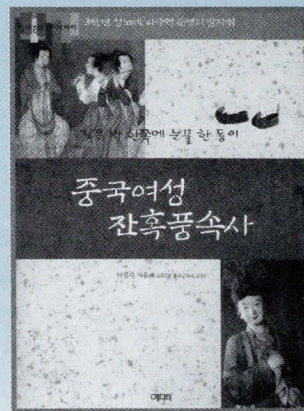
이영자 지음
에디터, 2003년 발행

중국에서 강제결혼과 축첩제도가 사라진 것은 1949년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한 이후이다. 중국 여성들은 3천년 역사 이래 성과 노역의 노예로 비극적 운명을 겪으며 살아왔다. 여성학대는 비단 중국에서만 있어온 것은 아닐지라도 중국 여성에 대한 남성의 학대와 차별은 상상을 초월한다. 경시대 중문학과 이영자 교수의 「중국여성 잔혹 풍속사」는 역대 중국의 여성학대 풍속사로 남성들이 부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여성들에게 행한 잔혹함의 기록이다.

여자들의 바깥출입을 막고 남성들의 변태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성억압의 상징인 전족 야만적인 여자 약탈, 단돈 몇 푼에 사고 파는 마누라와 딸, 성 노예의 극치를 보여주는 축첩제도, 딸 그대로 호러 스토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남성지배의 인류역사를 보면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끊임없이 행사해 왔다. 평등이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그러한 폭력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새삼 궁금해지는 책이다.

김 동 자 도서실장



2003년 7월 자원봉사자

현관 안내 해 주신
강신일, 강영봉, 고광래, 김영자, 김한미, 박찬숙, 심무순, 염지혜, 오영순, 이상숙, 이수옥, 이옥순, 이현숙, 전덕열, 전원순, 함화영, 홍순호, 홍진범, 황온선 님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강재덕, 고옥주, 김남숙, 김민숙, 김정혜, 노희자, 박선화, 백미도, 송미현, 안현숙, 유문숙, 한경준, 한정희, 함영익, 황인경 님

교육원을 도와주신
박요순 님

도서실 작업을 도와주신
박세희, 김미림, 손상희, 민경아, 김지희, 방수경, 김 영, 정경미 님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이길연, 최재영, 이화기, 장정환, 김경환, 이호찬, 이정숙, 김은미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고영소, 김광정, 임주용, 김정임, 김형완, 이남진, 홍승기, 한기찬 변호사 님

후원

일반회원이 되신 분
곽경양, 이석선 님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남산교회, 여의도 동사무소, 고복신, 오은경, 한기찬, 이정숙, 김은미 님

도서후원금을 주신 분
이석희 17 18 25기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가정법률상담소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

타협점을 찾아라

한 부부가 생전 처음 집을 구입해서 함께 단장할 수 있는 첫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단장하는 문제가 그들이 다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남편은 벽을 페인트로 칠하길 원하는 반면 아내는 벽지를 바르고 싶어했다. 남편은 기하학적인 무늬로 장식하고 싶었으나 아내는 꽃과 부드러운 전원풍의 장식을 고집했다. 둘이서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서로 동의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아내에게 친정 집은 어땠었는지 더듬어보라고 했다. 아내는 꽃으로 디자인된 벽지를 발랐다고 했다. 남편의 집은 페인트로 칠했고 장식은 기하학적이며 현대적이었다. 부부의 취향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지 각자 자란 가정이 어땠었는가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부부는 기꺼이 화해했다.

배우자와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 자신이 어떻게 컸고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성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우리의 기대는 전이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배우자와 납득할 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J. 케이트 겔빈